05차시 El tiempo 날씨

[학습목표 및 내용]

1. 내 자신의 상태를 나타내는 표현
2. 좋아하는 날씨와 계절

[본 학습]

▶ 오늘의 단어	
1. calor 더위 ex) Hace calor. 덥다. **2. humedad 습기, 습도** ex) Hay humedad. 습기가 있어. 습해. **3. fresco 선선한** ex) Hace fresco. 선선해. **4. viento 바람** ex) Hace viento. 바람이 분다. **5. frío 추위** ex) Hace frío. 춥다. **6. nevar 눈이 오다** ex) Nieva. 눈이 와.	**7. hambre 배고픔** **8. sueño 잠, 졸음** **9. miedo 두려움** **10. prisa 급함** **11. llover 비가 오다** **12. clima 기후** **13. estación 계절**

▶ 오늘의 대화

Ana : ¿Qué tiempo hace en primavera en Corea?
한국의 봄 날씨는 어때?

David : En primavera hace sol y hace muy buen tiempo.
봄에는 태양이 쨍쨍하고 날씨가 아주 좋아.

Ana : ¿Y qué tiempo hace en verano?
그러면 여름 날씨는 어때?

David : En verano hace mucho calor y hay mucha humedad.
여름엔 아주 덥고 습기가 많아.

Ana : ¿Qué tiempo hace en otoño?

가을엔 날씨가 어때? David : En otoño hace fresco y hace viento. 가을엔 선선하고 바람이 불어. Ana : ¿Y qué tiempo hace en invierno? 그리고 겨울 날씨는 어때? David : En invierno hace mucho frío y nieva a menudo. 겨울엔 아주 춥고 눈이 자주 와.

1. 내 자신의 상태를 나타내는 표현

여러분. '날씨가 춥다, 덥다'라고 말할 때는 hace frío, hace calor처럼 hacer동사를 사용해야 하죠? 그런데 만약, 내 몸의 상태가 '더워, 추워'라고 표현하고 싶을 때는 이 hacer 동사를 사용할 수 없어요. 바로 tener 동사를 사용해야 합니다. tener 동사의 동사변화, 한 번 읽어 볼게요. Yo tengo, tú tienes, él ella usted tiene.

♣ Tener 동사변화

인칭 대명사	Tener 동사 (~을 가지다)
Yo 나	**tengo**
Tú 너	**tienes**
Él, ella, usted 그, 그녀, 당신	**tiene**

Tengo ~다음에 상태를 의미하는 명사를 넣으면 내 몸 상태나 컨디션을 표현 할 수 있습니다. 자, 예문을 보시죠.
바로 더위를 뜻하는 calor를 넣어서 Tengo calor. 난 더워.
추위 frío를 써서 Tengo frío. 라고 하면 난 추워.
만약 배고픔을 뜻하는 명사죠. hambre. Tengo hambre. 난 배가 고파.
sueño 졸음입니다. Tengo sueño. 난 졸려.
'두려움'을 뜻하는 miedo를 써서요. Tengo miedo. '난 무서워.'
'서두름'을 의미하는 단어인데요, prisa를 집어 넣어서 Tengo prisa. 난 급해.
이처럼 tener동사로 자신의 상태 표현을 할 수 있겠죠.

♣ Tengo ~ 난 (상태가) ~해

Tengo calor. 난 더워.
Tengo frío. 난 추워.
Tengo hambre. 난 배가 고파.
Tengo sueño. 난 졸려.
Tengo miedo. 난 무서워, 두려워.

Tengo prisa. 난 급해.

이 표현들은 실생활에서 아주 아주 자주 쓰이는 회화 표현이니까 기억해 두셨다가 꼭 활용해 보세요!

2. 좋아하는 날씨와 계절

이번엔 좋아하는 날씨에 대해서 스페인어로 말하는 방법을 배워 보도록 할게요. 먼저 대화 내용을 읽어 볼게요.

A : ¡Hace mucho frío y está lloviendo! No me gusta nada este clima.
아주 춥고 비가 오고 있어! 난 이 기후가 싫어.

B : A mí tampoco. ¿Cuál es tu estación favorita?
네가 좋아하는 계절은 뭐야?

A : Mi estación favorita es el verano. ¿Ytú?
내가 좋아하는 계절은 여름이야. 넌?

B : A mí me gusta el otoño porque hace muy buen tiempo.
난 가을이 좋아. 왜냐하면 날씨가 아주 좋기 때문이지.

자, 한 문장씩 살펴 보면요. Ana가 말하는데요. ¡Hace mucho frío y está lloviendo! '아주 추워 그리고 비가 오고 있어!' No me gusta nada esteclima. '난 이 기후를 전혀 좋아하지 않아.' 라고 날씨에 대해서 불평하고 있습니다.

Está lloviendo는 '지금 비가 오고 있다'는 현재 진행형 문장인데요. 이처럼, 날씨는 estar동사를 써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날씨는 반드시 3인칭 단수 동사를 써야 하니깐 estar동사의 3인칭 단수형이죠? está를 써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표현을 할 때는 estar동사를 사용하는데요, 예문을 볼게요.

날씨가 흐려. Está nublado.
햇볕이 쨍쨍해. Está soleado.
눈이 오고 있어. Está nevando.

[정리하기]

♣ Estar 동사 (~한 상태이다)

Está nublado. 날씨가 흐려.
Está soleado. 햇볕이 쨍쨍해.

Está nevando. 눈이 오고 있어.

A mí tampoco. 나도 싫어.
A mí también. 나도 좋아.

Mi estación favorita es el invierno. 내가 좋아하는 계절은 겨울이야.